

보도시점 2024. 2. 8.(목) 14:00 배포 2024. 2. 8.(목) 13:30

최 부총리, 재래시장에서 재정경제금융관 오찬간담회 개최

- 최상목 부총리는 엄중한 대외여건 하(下) 경제동향 보고를 넘어선 새로운 재경관 역할* 강조
* ①현지 거점에서 공급망 책임관 역할 ②주재국 대외정책 기조변화 상황공유 등

최상목 부총리는 2.8(목) 11:30 독립문 영천시장에서 재정경제금융관(이하 재경관)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. 이번 재경관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재경관들로부터 각국의 민생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청취하자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시장에서 개최되었다.

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반한 정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재경관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역할을 강조하였다.

① 우선, 보호무역 기조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,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재경관들이 관할 지역의 공급망 책임관이 되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야 함을 당부하였다.

② 또한, 2024년은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해인 만큼 대외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, 통상 현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국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자고 하였다.

③ 마지막으로, 순방 성과의 후속조치 이행에 있어 국내 기업과 현지 정부·기업간 소통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재경관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이후 최상목 부총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점검하고자 주요국 재경관들과 영천시장 내 점포들을 방문하였다.

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.6(화)~8(목) 사흘간 재경관 회의를 개최했다. 재경관은 현재 14개국 18개 공관*에 파견되어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·금융 분야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, 주요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, 본부의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.

* 미국(워싱턴/뉴욕), 중국(북경/상해), 홍콩, 일본, 인도네시아(ASEAN), 베트남, 태국, 아랍에미리트(UAE), 프랑스(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/파리), 스위스, 벨기에, 영국, 독일, 러시아, 그리스

이번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주재국별 경제금융 동향 및 전망, 현지 정부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·세계무역기구(WTO)와 한국의 협력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 특히 올해는 주재국별 인구정책 시사점에 대해 토의하고 제언하는 시간도 가졌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	심현우 (044-215-7610)
		담당자	사무관	임지혜 (ljhabc@korea.kr)

